

25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

Chapter

요 1:35~42, 히 13:7~17

은혜찬송 207장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 9장 (한 눈 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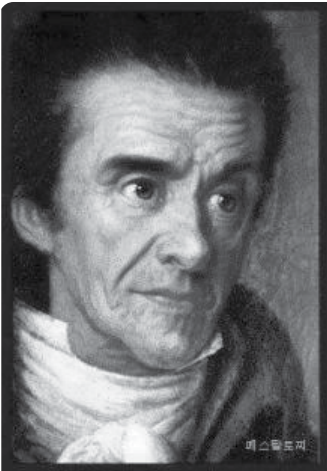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되심을 압니다.
2. 예수님께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이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집 나간 지 벌써 4일째나 되었는데. 눈이 쌓이면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텐데. 여보, 내 잠사 나갔다 오겠소.” 페스탈로치는 아내인 안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다 해진 옷을 차려 입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남자아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이로스라고 합니다.” “아니 오.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어도 모두가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또 도망쳤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잠시라도 눈을 떼면 무엇이든 훔쳐가니 안심할 수가 없소. 빨리 붙잡아요.” 눈보라 치는 이날도 페스탈로치는 도망친 아이로스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아이로스는 어디로 갔을까? 무사해야 할 텐데. 나쁜 짓일랑 하지 말

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아이로스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페스탈로치는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공공 얼어붙다시피한 아이로스를 찾아냈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로스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로스는 훌쩍이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로스, 아무 말 마라. 괜찮아, 추웠지?” 페스탈로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교육가인 페스탈로치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페스탈로치를 ‘참 교사의 표상’이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교사가 계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죄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셨으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분.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함을 받은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사셨고, 공생애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머리되신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치는 일을 위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인이나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니라 (히 13:17)

Obey those who rule over you, and be submissive, for they watch out for your souls, as those who must give account. Let them do so with joy and not with grief, for that would be unprofitable for you. (He 13:17)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4:32~38)

(행 10:23~33)

(살전 2:11~13)

2. 마태복음 10장 40~42절을 읽고 답해 보세요.

- 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 ② 본문에 나온 상 받는 방법을 다 기록해 보세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록 중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안겨 준 내용 한 가지를 찾아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 적어 봅시다.
2.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성경은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이 주신 선물



세상에 있는 그 무엇하고도 견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그날,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